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의 삶의 터전, 금산

한상욱(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일반인에게 금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삼, 약초, 청정자연, 축제라고 답할 것이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답할 정도로 금산의 이미지는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일반인들의 뇌리에 각인된 금산의 이미지는 군정의 캐치프레이즈까지도 바꾸어 놓고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하는 TV나 금산군에서 제작한 홍보 팜플렛을 보면,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이라는 어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쉽게 접하는 군정방향은 너무나 딱딱하고 권위적이며 정태적이지만 금산은 그렇지 않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 호흡하는 것, 살림살이를 의미하고, 고향은 편안하게 머물고 싶고 마음깊이 소망하는 곳을 의미한다. 미래의 땅은 고품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의미한다.

금산에서 제작한 홍보 팜플렛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금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시·군이 개발지향적인 구호 일색인데 반하여, 금산은 공동체 지향적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잠시나마 금산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자그마한 애착과 여유를 갖게 한다.

이렇게 인삼과 청정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금산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금산이 어떻게 발전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몇 자 적고자 한다.

금산의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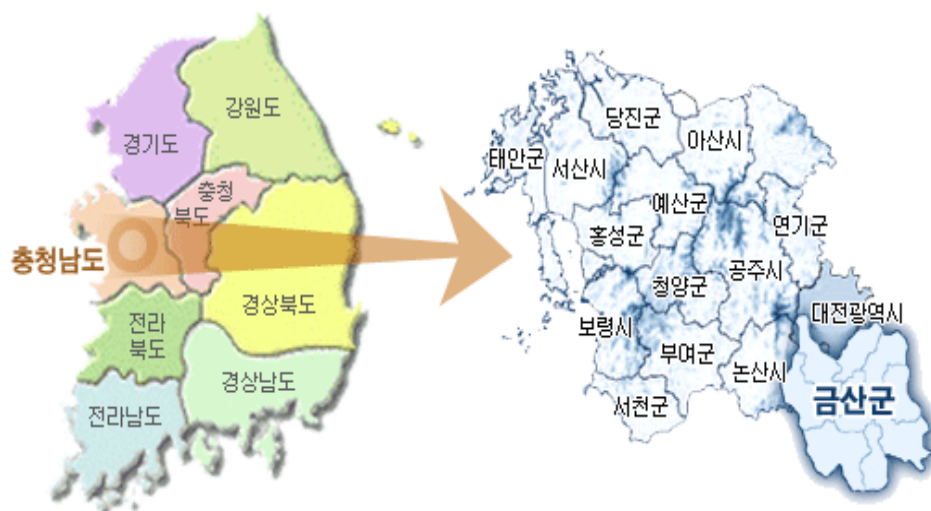
금산은 국토공간상 한반도의 중앙부(국토의 배꼽에 해당하는 위치), 충청

남도의 동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를 북측에 접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금남정맥의 지류가 뻗어내려 금산군의 중앙부를 지나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이 양대산맥의 가운데에 하나의 큰 분지를 이루고 있다.

금산의 총면적은 약 576km² 전 국토(22만848km²)의 1/383에 해당하는 크기이고, 충청남도 (8,699km²)16개 시·군중에서는 일곱번째의 크기를 차지한다. 이러한 하늘 아래 선택받은 토지위에 약 6만여명이 삶의 터전을 삼고 있다.

동서의 길이는 약24km, 남북은 32km로서, 군들레의 총 길이는 약 136km 4각형의 지세를 이루고 있으며, 면적의 크기에 따른 각 면의 순서를 보면 남이면, 진산면,부리면,제원면,복수면,군북면,추부면,남일면,금성면,금산읍의 순이고, 그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남이면은 가장 작은 금산읍보다 면적이 약4.5배나 된다. 그러나 남이면은 진악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오히려 금산읍이 남이면의 2.5배나 되어 금산군의 사회·문화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지형지세와 아울러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연요소는 기후인데, 금산은 한반도 남단의 가장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는 남부 내륙형 기후로 분류되며, 또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산악지대로 이루어진

까닭에 한서(寒暑)의 차가 크고 지형성 강우량이 비교적 많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10℃ 등온선을 경계로 하여 남부지방과 북부지방을 나누므로 기온상 금산은 남부형에 속한다. 또 평균 12℃ 등온선으로 온대와 난온대로 구분하기 때문에 금산은 온대에 가깝다.

강수량은 연평균 약 1,300mm로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인 1,159mm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리며, 대전광역시보다는 약 100mm가 더 많다. 이러한 이유는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해양성 기후인데다 산악군으로 된 분지를 이루고 있어 지형성 강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산의 토양은 여름철의 집중호우와 심한 하서의 차 그리고 경사가 급한 산악으로 이루어져 끊임없는 침식작용을 받아 정적토(定積土)가 많다. 더욱이 받은 인삼경작 때문에 경사도가 전국에서 가장 급하고 척박하여 그 색깔은 백색에 가까운 강한 산성의 정적토들이다. 그러므로 옛부터 금산에서 곡물보다는 특수작물인 인삼, 생약초등을 많이 재배하게 된 것은 토양에서 오는 부득이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금산의 지역특성을 정리하면, 역사적으로는 칠백의총 이치대첩지 등 충절의 유적지가 많은 충절의 고장이며, 문화적으로는 어필각, 태고사, 보석사 등 유서깊은 유적지가 다수 산재하고 있다. 교통적으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전국 반나절 생활권에 진입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80%가 인삼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인삼의 종주지이다.

금산 인삼은 세계인의 건강메카 고려인삼의 종주지이고, 금산에는 국제인삼시장, 수삼시장, 인삼전통시장 등에서 하루 150톤/57억원이 거래되는 인삼의 집산지이다. 또한 인삼을 제외한 약초의 경우, 하루 67톤/6억원이 거래되어 전국 3대 약초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금산의 지역 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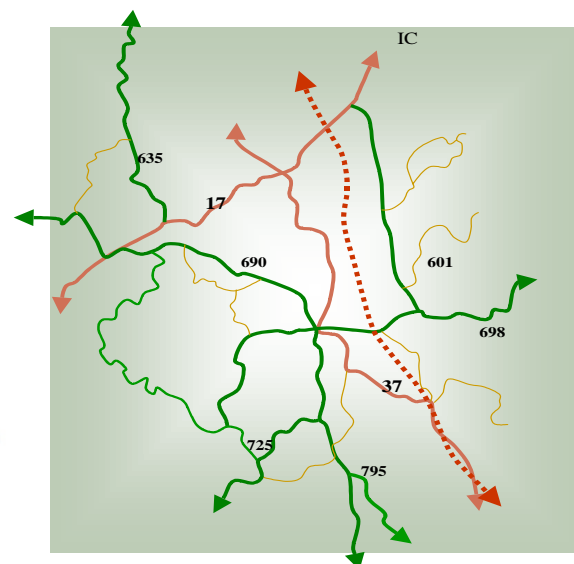
금산군의 생활권은 지형, 지세, 교통망과 타 지역과의 접근성, 중심지 기능, 생활필수품 구매권역 등을 고려할 때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금산 중앙부에 위치하여 금산읍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 생활권, 둘째는 금산의 북부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에 인접한 북부 생활권, 금산의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남부 생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통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역사적으로 금산 전체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금산읍의 중심 기능이 갈수록 쇠퇴하고 그 영향권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인접한 대도시인 대전광역시의 영향력이 금산군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대전~금산간 국도 확장과 대전~동영간 고속도로 개통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북부 생활권의 경우 금산의 중심지인 금산읍보다는 대전시의 영향권에 점점 더 깊숙이 편입되는 관계로 금산의 통합적 공간구조 형성 및 발전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행정구역도



도로망도

중부 생활권은 금산읍, 금성면, 제원면, 군북면 등 금산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1읍 3면으로 구성되며, 금산읍이 중부 생활권의 중심도시 기능을 담당한다. 금산군 지역 중 상대적으로 평야지대인 금산읍과 금성면이 이 생활권에 속해있어 3개 생활권 중 전담이 가장 많고,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중부 생활권의 면적은 금산군 전체의 약 3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57% 정도를 점하고 있어 인구 집중도가 높다. 면적 대비 인구 비율이 높은 이유는 금산군 경제활동의 중추를 이루는 금산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다.

북부 생활권은 행정구역상 추부면, 복수면, 진산면의 3개 면으로 구성된다. 대전에 인접한 관계로 금산읍보다는 대전시 생활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추부면 지역은 국도 17번을 통해 대전 동남부권의 영향권에, 복수면, 진산면 지역은 지방도 635번을 통해 대전 서남부권의 영향권에 편입된다. 북부 생활권의 면적은 금산군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26% 가량을 점하고 있다. 대전과 인접한 관계로 금산군 내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 및 인구 증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며, 현재 17번 국도를 따라 중소기업들의 개별입지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부 생활권은 행정구역상 남일면, 남이면, 부리면의 3개면으로 구성된다. 3개 생활권 중 임야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농경지의 비중이 가장 낮은 산악 지형이다. 입지 조건상으로도 대전과의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여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다. 남부 생활권의 면적은 금산군 전체의 약 37%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인구는 17% 정도에 불과하며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지역이기도 하다. 남부 생활권은 산업화나 상업화가 진전되지 못하여 인구 밀집 지역이 없어 생활권 중심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부생활권의 금산읍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청정자연환경을 가장 금산적인 지역발전의 지름길로 활용

금산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울창한 숲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청정 자연이다. 금산의 환경적 우월성은 3,000여개의 산들과 700여개의 대·중·소 분지로 구성되어 공기가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고, 136개의 소하천 발원지로서 물이 다른 지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농·산촌 마을이 700여개의 대·중·소 분지 내에 산촌 형태로 분포하여 집단 오염원을 만들지 않는다. 실제 금산의 이산화질소는 0.004ppm인데 반하여 대전은 0.026ppm, 서울은 0.021ppm으로 타지역보다 약 4~6배 깨끗한 공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금산의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고자 금산군에서는 청정자연을 최고의 미래자원으로 여기고 잘 가꾸어 나가고 있다.

금산에는 산림자원이 풍부한 데,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을 비롯하여, 대둔산, 마이산, 만인산, 천태산이 금산을 주변으로 병풍처럼 위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림이나 산속 민박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금산에서는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가꾸기 위해서 98년의 아름다운 숲 가꾸기를 시작으로 99년에는 금수강산 가꾸기, 2000년에는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2001년에는 경관목 가꾸기, 2002년에는 자연의 꽃밭 가꾸기, 2003년에는 정자 가꾸기, 2004년에는 명목 가꾸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이중에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는 지역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금산적인 지역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는 1,000개의 자연공원 중 777개소를 가시화 할 예정이며, 22개의 테마별 시범공원을 조성코자 하고 있다.

자연의 꽃밭 가꾸기는 810개소 1천67만8천평에 진달래, 조팝, 산벚, 아카시아, 짙레꽃, 층층나무, 생강나무, 병꽃나무, 국수나무, 자귀나무를 식재하여 2천 115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금산군은 계절별, 화종별, 테마별로 조성하여 4계절 푸른 금산을 가꾸고 있다.



주요 산 분포도



1,000개의 자연공원 분포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최고의 건강 선물, 금산 인삼

인삼하면 금산, 금산 하면 인삼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금산은 인삼으로 유명한 곳이다. 우리나라의 인삼 생산량은 1995년 이후 감소하다가 홍삼 판매제 폐지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수삼의 70%가 금산 시장에서 집하·유통되고 있는 데 이는 약 4,100명의 금산을 인삼 사업자들이 거대한 인삼타운화 하여 오랜 기간 시장을 개발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금산 인삼의 발전을 위하여 금산군에서는 매년 인삼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문화관광축제로 인삼축제가 6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될 정도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축제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좀더 다각적인 산업화를 위해 2002년부터는 인삼축제시 국제인삼교역전을 개최하고 있다. 국제인삼교역전은 외국의 우량 바이어가 참가하여 금산 인삼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진흥과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데, 금산에서는 건강·문화·자연이라는 컨셉 아래 차근차근히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산에서는 이러한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명실상부한 세계 인삼산업의 메카로 도약코자 하며,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꿈의 자치단체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2006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인삼약초시장 주변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금산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를 조성하며, 지속적인 브랜드 키우기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노력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건립과 금산인삼종합전시관 리노베이션이다. 유통센터와 전시관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시 주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제인삼유통센터는 건평 3,184평 종합전시관은 1,380평의 대규모 시설물로서 유통센터는 집하장, 가공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상품화실, 품질검사실, 연구개발실의 기능을 종합전시관은 교육실, 상품전시실, 홍보관, 시식코너의 기능을 담당하여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인삼산업클러스터 조성에 중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금산인삼종합전시관 리노베이션

인삼·약초산업의 메카, 인구4만의 건강수도, 금산읍 육성

금산은 군내 지역별 특성 차이가 뚜렷하고, 개발축이 대전방향으로 형성됨에 따라 금산읍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산읍을 인삼·약초 가공 및 유통의 중심지, 공공서비스·복지·교육·의료·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금산읍 외부의 4대 거점을 육성하고 그 파급효과가 내부로 전파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산읍 장기발전 구상도

금산읍 동부의 인삼·약초산업 거점은 인삼·약초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건강산업과 관광산업 등의 연관산업의 집적·발전을 유도하여야 한다. 기존 인삼·약초시장을 테마가 있는 특색시장으로 육성하고, 각종 문화 이벤트와 결합함으로써 장소 마케팅을 전개하고, 금산군의 경제발전을 촉발·지속케 하는 성장엔진이자 활력거점으로 우선 육성하여, 금산읍과 배후농촌의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금산읍 서부의 신주거 생활거점은 대전광역시권의 성장, 금산읍의 경제활성화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아인택지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형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전원 주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아인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건강 테마의 실버촌(Silver Village)을 조성토록 한다.

금산읍 남부의 체육활동 거점은 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삶의 질과 건강, 여가활용 및 생활체육활동 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양한 체육활동 시설의 집적으로 이용 효율성 제고 및 건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배후 농촌지역의 녹색관광 및 자연공원과 연계하여 활용토록 함으로써 방문객의 관광·위락활동을 다양화하여야 한다.

금산읍의 북부인 문화·복지거점은 만남과 교류, 문화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미래 지향적 커뮤니티 생활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금산읍과 주변 농촌지역 전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문화공동체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기회와 복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4대 거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존시가지의 갱신과 도시환경의 질 고도화를 통해서 금산읍은 청정한 자연환경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와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21세기형 미래형 삶의 터전으로 거듭 태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금산군,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1999

금산군, 금산읍 종합육성계획 제안서, 2003

충남발전연구원, 신명과 기쁨이 넘치는 아주 특별한 심포지엄, 2004